東亞日報

新聞代金 一個月 八拾錢 △三個月 貳圓參拾錢 △六個月 四圓五拾錢 △一個年 九圓 △郵稅共 △廣告料 五號活字 一行 金四拾錢 ... 發行所 京城府花洞 東亞日報社 振替口座京城 [illegible] 電話 [illegible]

正義와人道를爲하야 亞細亞를解放하라

米國議員團의게

去廿三日奉天公會堂에서開催된米國議員團歡迎會席上의一行代表 따이아氏의答辭에依하건대 「米國은極東에對하야一點의野心을抱치아니하고오즉正義와人道를爲하야亞細亞의人文進步와商工業敎育衛生其他政治經濟에亘하야그促進發展에對한援助를不惜하노니이는實로米國의數十年來로確立不變한一大方針인바列國의熟知하는바ㅣ라」하얏도다

吾人은따이아ㅣ氏의此言을聞하고眞實로欣喜를不禁하노니 [illegible]

世界大戰中의日本과中國關係(八)

一記者

好機、念慮

[illegible]

宇宙(五一)

三宅雪嶺原作

星霧(二)

[illegible]

太陽狀、遊星狀、衛星狀

[illegible]

動亂의北京에서(續)

吳子玉將軍을訪問하고(三)

特派員 張德俊

[illegible]

長辛店에

[illegible]

春柳는듯

[illegible]

輝耀한곳

[illegible]

朝鮮과는

[illegible]

明朝에는

[illegible]

吳將軍이

[illegible]

廣告와事實이違하면 虛僞의誇張이라

[illegible]

保寧郡熊川面城洞 布通信販賣 泰東商會

開業廣告

大正九年八月十日 新義州榮町七丁目 平北商會 主 金成鎰

補腎丸

定價 一個月分 壹劑 五圓五拾錢 十五日分 半劑 貳圓參拾錢 郵料 壹個月分 十五錢

濟世藥房本舖 主 林禎基 京城府竹添町壹丁目三十九番地 振替京城六堂貳四番

救世靈藥 鐵精丸 保腦丸 萬病如意丹 淋疾特効丸 京城義州通 大寶堂藥房

神經衰弱한者의大不幸

藥에原料가乏絕되는緣故

[illegible] 京城鍾路二丁目 模範賣藥商會

新久積滯에理想的特効藥은 起死回生 再逢春 定價 一劑 金貳圓五十錢 試用分 金五十錢

寸白蟲滅死劑 定價 一包 金五十錢 製造本舖 京城府唐珠洞五番地 半島賣藥商會

九月一日開業

高陽郡龍江面東幕上里一八一番地 東鎭倉庫株式會社 電話一九四一番 營業科目 (倉庫業)(金融業)(委托賣買業)

洋靴와經濟靴의 一等匠工의技術로 高尙優美하고 品質堅固하며 그우에價額低廉함은 英一洋靴店의特色

京城安國洞一五〇番地 英一洋靴店

高麗松蔘大發賣

[illegible] 松蔘商會 振替京城五四五四

竹南樂器店 各種樂器並樂譜具備 京城仁寺洞一三七番地 電話一四九三番

本社販賣生白苧는改良한結果品質이良好하니僉彦은愛護하와現金又는引換으로注文하오면廉價酬應함 忠南鴻山南村里 忠南苧布株式會社

競賣廣告

京城西大門外前獨逸領事館內에서本月三十日上午九時로부터賣할 [illegible] 委任者 朴錫基

廣告

弊店에서鐵原、伊川、金川、新溪産明紬를販賣하오니不拘多少하시고倍前愛護하심을大望 但地方에는代金引換으로도送하되郵料先送하심을要함 黃海道金川郡市邊里 鄭容九

特別廉價賣出廣告

弊社製品中 金花帶 別疋足紐 雙疋足紐 等在庫品을今般左의條件으로特價廉賣를開始하오니多少를不拘하시고陸續注文하심을務望하압

一、廉賣特價 時價의五割引
一、廉賣期間 自大正九年八月二十三日 至同年九月十五日
一、代金支拂方法

京城府並木町二七六番地 京城織紐株式會社 電話長一一八八番 振替口座京城四一二七番

洋襪廣告

外國品을凌駕하도록堅實하게製造한洋襪을特別히廉價로提供함 共信號洋襪 平壤府館後里二八五番地 振替口座京城五七七二番

埃及兩切卷煙草

京城本町三丁目三〇 株式會社 伊藤商行 京城出張所 電話長七一七番

ClibPDF - www.fastio.com

歐米時事

埃及獨立承認

倫敦『타임스』紙는 二十三日英國이 埃及의 獨立承認에 同意한旨를 發表하얏더라(紐育二十三日發)

同別報

倫敦『타임스』紙는 二十三日 英國이 埃及의 獨立을 承認함에 同意한旨를 決定함은 英國의 埃及派遣委員『밀러』卿과 埃及代表者間에 交換한 最近의 商議에 協定을 遂한者인대 該協定中重要한者는 左와如하더라(紐育電)

一、埃及은 나일河流域에서 英國의 特種地位를 認할事
二、戰爭時에 埃及領土에 接近하야 得할만한 一切의 利便을 英國에 與할事
三、英國은 運河地方에 守備隊를 設할事
四、埃及은 外交權을 恢復할事
五、埃及에 治外法權을 撤廢할事

英佛勞働者提携

英佛二國勞働者는 戰爭反對의 態度에 就하야 提携가 有하다 宣言하엿더라(倫敦電)

英伊對波讓步勸告

巴里報道에 依한즉 英國首相『로이드、쪼지』氏及伊國首相『이올릿치』氏는 露國及波蘭에 對하야 互相讓步하야 速히 講和를 締結하라 勸告하얏더라(倫敦二十三日發)

波問題에 英佛一致

波蘭問題에 對한 英佛兩國의 意見이 漸次接近하야 近間一致를 見함에 至하리라 觀測되더라(倫敦特報)

米政府對波勸告

米國政府는 波蘭에 通牒하야 目下過激派軍追擊中의 波蘭軍으로 하야금 波蘭의 民主的(?)境界外에 進出하지 아니케하도록 勸告하얏더라(華盛頓二十二日電)

寫眞結婚에 對한 質問
國務卿『콜비』氏의 答辯回電

十九日到着할 豫定이든『시베리아』丸으로 乘하고 米國에 渡航하는 寫眞結婚婦人에 對하야 米國上陸을 繼續許可하는가 米國上院議員『페란』氏는 何故로 寫眞結婚婦人의 上陸을 繼續許可하는가 質問하얏든바 此에 對하야 國務卿『콜비』氏는 本日 左와如히 回電하얏더라(國際桑港二十三日發)

日本政府와의 新協約은 如斯한 旅行券을 二月末日以後는 發行치 아니할事를 規定하얏스나 既히 發行된 旅券은 發行日부터 六個月以內에 日本으로부터 出發할時는 有効할事를 規定하얏는대 思컨대『시베리아』丸은 該期間의 經過以前에 日本을 出發한者이라

米船의 軍需輸出

『안다반다ー스』『뗑지우』紙는 報하야 曰 勞働組合의 反對가 有함에 不拘하고 米國의 商船은 波蘭方面에 向하야 多數의 軍需品을 積出하는 中이며 是는 米國이『라인』方面으로부터 送하는 것인바 是等은 又米國政府에 對하야 輸送하는 것이라더라(伯林電)

波造船所閉鎖

波『치-로모』『워스』兩造船所는 幹部에 對하야 勞働者가 反抗함에 因하야 一時閉鎖되얏더라(伯林二十二日發)

戰後問題

國際聯盟召集發表

米國大統領『윌손』氏는 十一月十五日에 瑞西國『쥬네바』에서 國際聯盟總會를 召集할旨를 發表하얏더라(華盛頓二十二日發)

露國關係

波出征願者三十萬

波蘭에서는 十七歲로부터 二十歲에 至하는 非戰鬪員을 動員하는데 出征코자하는 波蘭人은 既히 三十萬에 達하얏더라 過去數個月에 亘하야 婦人의 訓練을 行하얏는데 婦人團體中 捕虜된者 其總數二十五에 達하더라(倫敦二十三日發)

『월소』附近의 兩軍形勢

過激派中央軍과 左翼軍의 一部는『부크』河東岸에서 制止키 可能할는지 疑問이라 過軍의 中堅은『월소』의 北方『나레우』河의 兩岸에서 頑强히 抵抗하는 中인대 波蘭左翼軍은『동간』을 中心으로하야『무라와』河에 追하얏고 又『월소』南東의『볼스크』軍에 進出하야『레가부』를 占領하고 過軍左翼과 中央軍의 聯絡을 中斷하고『브레스트리토우스크』를 占領하얏더라 然이나 此에 依하야 勞農軍의 大部分은 退路를 絶할지라 勞農軍은 今에 士氣가 沮喪하야 後方에 兵站設備가 無하고 且交通線이 不備하야 各軍隊의 聯絡을 缺하야 豫備軍이 無함으로 退却에 困難을 來케하얏더라 此에 反하야 波蘭軍은『보제소르는』聯에 大豫備隊를 置하고 進軍하야 全軍의 總進出에 移하려하는 態勢

波電線着々奪還

農軍은 라프브프레스록크에서 退却할터이며 又波蘭軍에 依하야 兩翼挾擊에 遭하는 危險이 有하리라 觀測하며 佛國人은 波蘭의 戰捷을 自國의 戰捷과 如히 歡呼하며 又米國大使『월라스』氏는 佛國外務省을 訪問하고 米國政府는 佛國政府가 波蘭을 爲하야 取한 態度에 滿足하다는 旨를 表하얏더라(倫敦電)

波蘭公報에 曰 波蘭軍은『싸크』河左岸을 奪取하고 露軍要塞의 南方砲壘에 到達하얏는대 目下露國軍은 無秩序的으로 退却하는 中이더라(倫敦二十二日)

◎中部『시레시아』諸地方을 通하야 波蘭은 兵二千을 動하야 同國境地方을 襲擊하얏는대『카워츠』附近에서 數個의 地點을 占領하얏더라(伯林二十二日發)

◎波蘭軍은『굴프스』를 占領하고 北方及西北에서 過激派軍의 退却을 切斷하얏다 主張하더라(國際월소二十二日發)

同別報

佛國外務省에 達한 情報에 依한즉 波蘭軍의 策動에 依하야 露國의 四個師團은 諸方面으로부터 其戰線을 遮斷되야『삽다우』地方에 在한 他의 赤衛隊는 孤立되얏고『싸크』河右岸의 露軍은 敗北하야『브레스트리토우스크』地方에서는 波蘭軍에게 包圍되는 中이며 露軍의 捕虜된者가 二十一日外지에 二萬五千에 達하얏는데 今에는 此倍數에 達하얏다 信하더라(巴里二十三日發)

波軍의 成功結果
獨逸의 企圖를 顚覆하리라

倫敦『타임스』는 巴里特派員의 所報에 曰 波蘭軍總司令部顧問『웨간』將軍은 波蘭今回의 成功結果는『벨사유』講和條約을 破壞코자하는 目的으로써 勞農露國의 援助를 得하라는 獨逸의 企圖를 顚覆하리라 信하는대 右獨逸의 企圖는 敵兵을『라인』以西에까지 配置코자하는 計劃을 包含하얏더라(倫敦電)

獨勞働者 波蘭封鎖

獨逸勞働者는 勞農政府의 建設을 布告하얏는대 同政府는 波蘭에 對한 封鎖를 宣言하고 佛國巡洋艦의 入渠를 拒絶하얏다더라(伯林二十三日發)

露軍『브』方面撤退承認

露國側公報에 曰 露軍이『브레스트리토우스크』를 撤退한事를 認하고 又吾人은 今에 敗戰의 苦를 嘗하려는 時에 當하야 徒히 遷延코자하는 波蘭中流階級代表委員에 對하야 信用을 置키 不能하다 云하얏더라(莫斯科二十二日發)

『우』將過軍追擊

『우』將軍은 …… 過激派軍을 追擊하야『도니에스텔』河에 …… (東京電)

河口바『河의 沿岸에 上陸하야 同地人民의 援助를 受하는 中이더라(시트니電)

『데』軍司令官行衛不明

海參威情報를 依한즉 海參威政府의『데카신』軍司令官『우스도우이』『아소프』將軍은 二十一日夜 突然히 行方이 不明하게되야 政府側은 狼狽하야 探索하는 中이나 아직 不明한故로 一問題가 되얏다더라

中國情勢

禍魁法廷起訴 決定
靳總理對溫宗堯氏通告

靳總理는 本日廣東側南方和議總代表溫宗堯氏에게 打電하야 徐樹錚外九名의 罪魁에 對하야는 法廷으로부터 此를 起訴케한 後日本公使館에 對하야 引渡를 要求하는 手段을 取하기로 決定한旨를 通知하얏더라(國際北京二十三日發)

徐樹錚監視要求

二十二日外交部는 日本公使에 對하야 公文書로 貴官은 徐樹錚等九名을 政治犯人으로 하야 保護하나 弊國은 彼等을 刑事犯人이라 認한故로 罪名決定後引渡를 要求할터인즉 其時外지 逃亡치 아니하도록 監視할을 要求하는 旨를 通告하엿더라(國際北京電)

韶州南北軍戰鬪

廿一日福建에는 南北軍이 侵入하야 韶州附近에서 戰鬪中이더라(國際北京電)

奉天軍備擴張 內容

張作霖氏의 軍備擴張意見은 非實이나 此際에 師旅의 增設은 行치 아니하고 專히 內容의 充實을 圖하야 混成旅와 如함은 師團과 同等한 組織內容으로 改하리라 하는대 然하야 東三省의 軍權은 全히 張氏의 掌中에 把握할 方針이라 傳하더라(奉天電)

王調査委員出發

漢口中國砲艦事件共同調査委員 王鴻年氏는 十四日出發하얏더라(國際北京電)

瀨川領事應援

瀨川領事는 湖南戰爭에 伴한 日中交涉事件에 就하야 在長沙領事를 應援키爲하야 出張을 命하얏더라(東京電)

關稅增金要求

中國政府는 北京外交團에 對하야 關稅增金二百七十萬兩交付方을 要求하얏더라(北京電)

天津信託取引開始

米國法에 依하야 日本人의 經營에 係한 五國信託取引所는 去二十日 伊太利租界에서 開業하고 …

兼二浦警察署 朝鮮巡査總辭職

…방면에 도만히 들어온 모양이 잇슴으로 경관은 우야를 가리지 아니하고 무쟝을 하고 경계를 엄중히 하던 바 …

七歲로 十五歲의 兒童軍의 募集

農事協會列席者

十一月三日伊太利羅馬에서 開催될 萬國農事協會大會에는 日本代表로 道家齊氏가 列席하기로 內定하얏더라(東京電)

制令五件公布

左記制令五件을 八月二十六日附로써 公布한다더라
一、朝鮮에 移入하는 物品의 移入稅等에 關한 件
一、朝鮮關稅令廢止의 件
一、朝鮮出港稅令
一、明治四十五年制令第二十一號中改正의 件

米議員總督訪問

二十四日入京한 米國上院議員『하리스』下院議員『레이、암、쎄、스몰』同行一行은 中國北京駐在總領事館附商務官『안더슨』『도』三人으로 成한 同議員團一行은 代表하야 京城駐在同國領事『밀러』氏를 同伴하고 二十五日午前十時總督府로 齋藤總督을 訪問하고 入京의 禮辭를 述하얏더라

總督米議員招待

齋藤總督은 二十五日午後四時부터 總督官邸에서 茶話會를 開하고 入京中인 米國議員團一同을 招待하얏더라

米議員團動靜

二十四日夜에 入京하야 朝鮮『호텔』에 投宿한 米國議員團一行은 二十五日午前九時半에 自働車로 總督府에 至하야 國際親和會의 案內로 南山公園、昌德宮秘苑、總督府醫院及醫學專門學校、中央試驗所及工業專門學校、於義洞公立普通學校等을 巡覽한後 午後一時半부터 國際親和會主催로 朝鮮『호텔』에서 開催한 歡迎會에 出席한後 同四時부터 總督官邸에 開催한 齋藤總督의 茶菓會에 參席한後 暫時 朝鮮 …

米議員團長 스몰氏車中談

米國議員團一行中의 年長者로 事實上의 團長인『스몰』氏는 奉天으로부터 京城에 至하는 車中에서 語하야 曰 今回中國旅行中 日中關係에 關하야 余의 得한 感想은 中國이 甚히 日本을 信用치 아니함과 如하니 兩國을 爲하야 實로 不幸이라 云치아니치 못할지로다 余는 其理由가 正當한與否를 不知하나 然이나 若中國이 日本을 惧한다하면 此와 如한 感情은 어대까지던지 一掃하여야 할지로다 惟컨대 何國이나 他國의 權利를 侵害치 못할것은 國際關係의 根本이라 中國은 共和國을 樹立하야 今에 自治的國家의 試驗時代에 在하도다 然則他의 諸國은 中國으로 하야금 確實 堅固한 政府를 樹立케하고자 此를 鼓舞하며 且此를 援助하여야 할지라 中國에는 多數의 靑年이 有하야 善히 政治를 解하는즉 畢竟彼等은 將來中國國民精神의 統一에 對하야 有力한 分子가 되리라 余는 旅行中機會가 有할마다 今日日本政府及國民의 義務는 中國에 對하야 어대외지던지 此를 援助함에 在함을 發表하얏거니와 此가 亦日本官民의 信念이 되리라 信하노라 今日의 外交는 過去의 物이 되얏다 하리로다 輿論이

內政을 支配

함과 如히 公明하고 正當한 輿論은 結局國際關係를 支配치아니치 못할지라 若此가 日米關係에 就하야는 米國이 常히 親善의 精神을 有하나 …

奇怪한 地方制度(三)
立案의 本意가 那邊에 在한가

資格制限 下의 二

(一)協議員과 評議員의 選擧를 行함에 就하야 其選擧權及被選擧權을 得하는 資格과 官選을 任할 資格의 制限에 就하야 公費負擔年額五圓以上으로 制限한 것은 朝鮮의 民度를 無視하고 世界의

大勢에 逆行

하는 事이라 旣爲缺點을 紹介하얏고 其外에도 更히 幾多論難할 點이 多하나 此는 姑捨하고 方面을 一轉하야 總督府當局者가 如何한 必要로 如斯한 制度를 立하야 如何히 運用하라 하는가 其眞意의 所在를 紹介할 必要가 有하다 其眞意에 對하야는 二點이 有하니 其一은 道評議員과 府面의 主要한 面의 協議員에는

日本人議員

을 半드시 朝鮮人보다 多數를 占하게 하야 如何한 境遇에던지 其機關의 意思를 作함이니 此는 朝鮮人議員이 或時當局者의 提議에 盲從치 아니할 境遇에는 何時던지 日本人議員을 操縱하야 此를 壓過하라는 細心에서 出함이라 然이나

(一)協議員의 定數는 其人口의 多寡를 隨하야 此를 定하되 外面으로는 不得已此原則에 從하얏고 (二)日本人議員은 朝鮮人議員보다 其數를 多케 함을 要한다 하는 規程은 朝鮮人本位의 地方自治라 하는 廣告板下에 차마 行키 難하고

其外에 適當

한 方策이 無할가 하고 苦心案出한 것이 此巧妙한 方案이라 原來朝鮮內各郡面에 一般히 朝鮮人보다 優勝하야 多額의 公費負擔者는 其數가 全體로 多數인 朝鮮人보다 少數일지라도 其富力은 大한 在留하는 日本人은 其數는 朝鮮人보다 少數일지라도 …

自明의 理

이 … 此選擧를 行하는 地方에서 日本人有權者가 日本人候補者의게 投票하고 朝鮮人의 有權者가 多數하게 되고 金額을 高케하면 日本人의 有權者가 多數할 것은 …

然而本來

此制度의 最高限인 五圓을 一般으로 適用할 時는 朝鮮人과 日本人의 有權者數가 너무 懸隔의 差違가 되야 日本人議員이 十에 七八을 占할 時에는 當局의 政策이 너무 露骨되야 世評을 防키 難하며 又는 地方을 隨하야는 日本人의 有權者는 極히 少數되는 것을 …

釜山의 日鮮人人口

數와 有權者

釜山府에 在한 日鮮人의 人口數와 有權者數를 比較하건대

朝鮮人 三萬六千三百六十二名
日本人 二萬八千三百九十四名
(以上最近日鮮人人口數)
朝鮮人 一千六百七十四人
日本人 一千九百七十一人
(以上은 新制度에 依한 日鮮人의 有權者數)

極東統一의 前途
海『월』兩政府對峙
前途幾多曲折未免

海參威方面의 情勢에 依한즉 極東沿海州委員會는 八月十四日에 極東全住民大會代表者會議의 招集을 爲하야『월쿠네오진스크』에 海參威黑龍兩全權代表者를 招集하고 此로 露國統一의 必要를 宣言하고 …

京畿農作水害

去八月一日로부터 三日에 亘하는 降雨로 京畿道管內의 農作物水害는 …

殖銀株主總會
原案通過 重役改選

朝鮮殖産銀行 定時株主總會는 二十五日午前十時부터 長谷川町銀行集會所에서 開催하얏는바 …

鮮銀理事任命

二十五日附로 左와如히 朝鮮銀行理事의 任命을 發表하얏더라
吉田節太郎
掛井 生治

宇都宮大將出發

軍事參議官 宇都宮大將은 旣報와 如히 朝鮮軍司令官을 轉補하는 前朝鮮軍司令官 宇都宮大將은 旣報와 如히 二十五日午前十時龍山驛發列車로 歸東하얏는바 驛에는 齋藤總督 水野政務總監 淨法寺師團長을 爲始하야 京城在住官民多數의 盛大한 送別이 有하얏다더라

三法官의 歸東

高等法院檢事長 國分三亥 地方法院長 勅使河原健之助 覆審法院…

商品貸出減少

七月末日現在 京城組合銀行의 商品擔保貸出高는 朝鮮産品에 對하야 四百十一萬四千餘圓이오 輸移入品에 對하야 七百六十三萬餘圓으로 合計千百七十七萬餘圓인바 此를 六月末現在에 比하면 百十九萬圓의 減少를 示하얏다더라

京電水力設置中止

京城電氣株式會社에서는 漢江上流에 水力電氣를 設置키 爲하야 計畫中이든바 財界不況인 時期임과 近時營業狀態로 因하야 資金의 餘力이 不足함으로 當分間中止하기로 決定하얏다더라

人事

▲金瑯秀(牧師)氏는 今二十六日 海州查經會에 出張하얏는데 約一週日豫定
▲河內山財務局長은 二十六日夜에 歸任할豫定

東京金融近況
預金貸出共히減少

東京交換所組合銀行의 二十一日現在週報를 見한즉 前週에 比하야 預金과 貸出이 共히 又復減少하얏는대 …

鮮線中旬業績

今月中旬의 朝鮮線運輸狀況을 聞한즉 貨客輸送은 引續不況한 狀態로 唯貨物運輸는 稍稍有望인대 其統計는 左와如하더라

釜山協議員選擧
方今準備中

關稅改正과 其影響(三)

露國과는 何如(三)

朝鮮과 露國

貿易額이

商況

京城穀物 小賣時勢

算定價格 二十五日

京城株式市況

京城株式市場은 開始初에 京取二十五圓五十錢에 寄付하야 二圓內外에 外上下混戰하다가 二十四日後場에 二十圓臺를 突破하고 十九圓三十錢外지 低落하야 京株에 有한 時勢이라 仁川期米暴落에 伴하야 或은 徐々軟化할지도 難測이오 株式界에 暗雲이 重疊하야 不知何境이더라

京城現物時勢

大阪綿絲 三品時勢 廿四日後場

各地市況

日本金利及市況

大阪期米廿四日前場

期米大暴落

二十五日仁川期米前場은 前日에 比하야 一百三十餘丁이 崩落하고 後場에는 二百五十丁이나 大暴落되얏더라

仁川期米 二十四日後場(軟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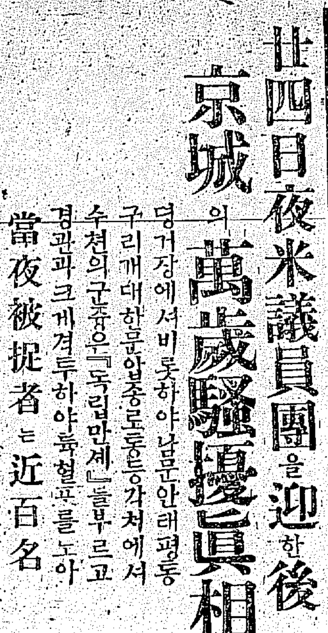
二十五日前場(崩落又激落)

八月廿五日後場

本日時勢는 右와 如함

京城南大門通一丁目二十二番地
仲買店 主 金潤秀
電話 一九二番 二九七番

天氣豫報



◇미국의원단장『스몰』씨부처 ‖아래의필적은그의자서‖

廿四日夜米議員團을迎한後 京城의萬歲騷擾眞相

뎡거장에서비롯하야남문안대평동 구리개대한문압종로동등각처에서 수천의군중은『독립만세』를부르고 경관과크게격투하야륙혈포를노아

當夜被捉者는近百名

미국의원단일행을태운특별렬차가무사히 남문역에 도착하매삼여대의자동차는사십여인의의원과및그가족을태워가지고경비가엄중한남대문통을지나조선호텔에둘어갈새동으로물니고서로밀니는수천명의군중들은부실부실나리는 구즌비에옷을 적시며한사코 연도부근을 떠나지안으며수근대는양은 자못무슨 변동이금시에날듯々하더니과연 의원단을태운몃대의자동차가예뎡々변하야 대한문압을 지내일즈음에 조선공론사(朝鮮公論社)압헤서부터

대한문압 너른마당에서는 돌연『만세!』하는소리가 이러나매 경위하든경관일동은 크게놀내여달녀드러제지를하며 뭇군중들은 혜를지여 매일신문사문압흘지나 구리개 네거리로 사라지는데 그동안에 본뎡서로 자바간만세부른청년이 거의삼십여인이나되얏스며 구리개네거리로몰닌군중은잠시묵々하야경관에게 숨돌닐시간을 좀주더니 얼마아니하야 다시 만세소리가 구리개네거리를중심삼고크게 이러나며

천여명의 군중은북으로 종로 네거리를향하야다름질을하며양쪽인도로두세에난호아만세를놉히부르고 종로네거리까지 이르럿는데 그사이에 경관들은 몽동이와 칼자루로 만세부르든듯한사람은닥치는대로붓잡아길에다쓰러트리고함부로구타하야월장의 단병접전이 이러난듯한커참한광경을 이루엇는데 마츰 오후구시반경에 데삼부에 잇는 어느형사가 만세를불은 두명의 청년을 잡으라할즈음에 군중이 와!하고덤비어서그청년을빼앗스랴함으로 군중과형사들은 크게격투를 하는중 형사는마츰내 륙혈포를 노왓슴으로 군중은 잠시헤치엇는데 이사이에 종로서로데포된 청년의수는 거의사십여명에다다른모양이요 종로네거리에서 잠간헤치엇든 군중은또다시합세모히어만세를 부르고이번에는동으로우미관압흘향하야가다가 마참내 다수한 경관네에게 해산을당하고 마랏스나 처々에서『만세!』『만세』하는소리는 거의쉴사이가 업서 갓득이 긴장하얏든 일반시민의 신경은 더욱더욱 흥々하게되엿스며 열한시가지나가서는 거리거리골목마다득々히고순경들은

남녀로유 를물론하고눈에띄우는대로 붓드러 별별가지 신문을다한후 조금만 미심하면 그자리에서 차고따려가면서 돌려보내엿슴으로 경성시민은 송구함을 금치못하고 맛치전장에 잇는듯이 잠들이루지도 못하얏더라

二十五日에도 京城은亦是撤市

경관의게엄은어제보다도 오히려새롭게엄중하엿다

만세소리와 말굽소리에 인심이 흉々하든경성시가는 극히 참담한가운대에 이십사일밤을 새이고다시 미국의원단이 경성시가를순람하는 이십오일을 마지하얏다 이십사일밤에 한참드모차고경게를하든경관은 여전히 종로네거리는 물론이어니와 기타각처

중요한곳 에는긔마순사와 각반친순사가 이십사일 오후나조금도다름업시 경게를 하고 잇섯스며 상뎜문은 여전히쳐々히다처여잇서 온시가는 자는듯한가운대에 오직경관들의 칼집만이 해빗에반사하야 더렵한살긔를온시가에 퍼치엇다 이러커리로몰녀다니는 흰옷입은 군중들은 여전히 수효가 적지안이하야 경관들에게 무한한겨경을써치엿스며 이날도역시 식전부터 경관들은칠々이다처인상뎜문을 모조리두다려가며 문을열나 하얏스나 주인과및 가족들은임의 이와가튼 위험을 예측하고 혹은 디방으로 다라나고 혹은문밧그로 피신을하얏슴으로 계게는실패에도라갓스나혹

미리피신 을못하야순사에게 쇄니여나와서 할일업시상뎜문을 여러노앗다가도 순사만 지나가면 여전히 빈지를딱々드리고 피신을하야바리는 형편이라 이에경관들은 마주막수단으로 하다못하야 상뎜주인의부인가족들을 본서로다려다가 문을열나고 설유까지하기에 이르럿는데 그중에도모범매약상의 주

萬歲騷擾와 署長會議

이십사일밤 데삼부에서

재작일에 미국의원단이 입성하자각처에서 만세소동이 이러낫슴으로 경성내각경찰서장은 이십사일에대하야 그날밤 열시부터 데삼부에 모히어동열두시까지협의하얏다더라

千葉三部長 警務局에出頭

이십사일밤보고와 ◇무슨비밀회의

천엽데삼부장(千葉第三部長)은 이십오일 오전십일시에 총독부로출두하야 적지(赤池)경무국장을방문하고 이십사일의 경계보고와 밋무슨비밀 회의가잇슨후곳도라갓다 더라

米國議員團一行의 南大門到着光景

『이곳이서울인가』하는긔이한 눈동자로의원의부인령양까지 일행사십구명은원긔왕성하게

경성시민의기다리고기다리든미국의원단『스몰』씨이하 사십팔명은임의보도한바와가치작이십사일오후여덜시삼십사분에특별렬차로 남대문에도착하얏다 오전에는 청명하야한점의 구름도업든하날이 오후부터 떼々로이상스러운바람이불며먹장갓흔

거문구름 이모히엿다가 다시헛터지고 헛터젓다가 다시모히며 떼々로 쏘락비를 뿌리어 한참동안은 처어다보기에도 무시々험악한 하날이되얏다가 다시구름사이로 은빗갓흔 월색이 빗치여 변화가무궁한 작일의천긔는 무엇을의미하야 말하는듯 [illegible] 경성시가의경비는 나는새도 드러가지못하게엄중하얏다 의원단이 도착하기젼부터 남대문역을시작하야 부근에활동하는 눈의광채는 어둡고커진『푸랫트홈』에서 뎐긔가치번적이며 구내에통행하는 출입구에는

장성가치 칼자루를추이고 드러가는사람마다 발끗부터 머리위까지 뚤어질듯한 날카로운눈으로 흘터보며 조금만의심々하는기색이보히면곳그러멀니모라내이며 통행하야 다니는 출입구에서는드러가는사람의뎡원수효가잇다하야일일히명함을밧고뎡원외에는엇더한사람이든지아니드리여 멀니오는 손님을마지려나아간사람들은불과몃십명에지내지못하야 넓고넓은『푸랫트홈』에는 이구석에 두서너명저구석에 사오인식보이여쓸々하게가다리고 잇는사람들은

룡산방면 에서굴너오는 차소리만가다리고잇섯다 여덜시삼십사분쯤되여 기적소리도 업시 [illegible] 남대문구내로속력을늦치여천々히굴너드러왓다 이순간에 영접하려왓든사람들은별안간에 허둥지둥하며 특별렬차실에서는 [illegible] 파나마를쓴 [illegible] 부인들도 차안에서 왓다갓다하며 한편으로는 손에가방들든사람 그중에나히졂은 령양들은 [illegible] 여름양복을산듯하게 차리 [illegible] 수염이 희끗々々하게쉬인 풍채조흔로인의 팔에매달이여

어리광을 부리며처음보는나라의 낫모르는사람들을 흥상스러운눈으로 훔어다보며 이곳이『서울』이오 저사람이조선사람이냐고 뭇는말이 이곳저곳에셔 들니인다 그중에엇던한나히적은 아가씨는 남대문편을가라치며 시가가 웃지이리어두우냐!하고뭇는얼굴에는이상한빗치가득하다 맨나종에차안에서 내리는 회색양복에 나마른모자를쓴 오십가량이나된 신사는 [illegible] 이신사는 다시무를것도업시 일행의단장되는『스몰』씨이엇다 본사에서 영접하러나아간본사주간은 그『스몰』씨에게 와다뜻한악수를 교환한후 간단한담화를맛치고 그다음청년회에서나아간리상재씨와 면회를하얏는데 동씨는 어느때에든지어느 회석에든지 조선옷으로만교제를하는터임으로 여러사람들에게특별히 시선을 끌엇다 [illegible] 손은단장『스몰』씨의손과 굿은악수를 교환한후 분망한중에도 정근한회화를 교환하고 이야기하는사이에는 자미스러운일이 만히잇섯는데 그중에서 리상재로인의얼굴모형이 [illegible]

화성돈에 가거든 바로리 [illegible]

어린아해

인리우인(李玉仁)씨의부인은젓먹는 어린아해를두고 종로서로쫏니여드러가 몃시간이 되도록나오지를 안는다고 몃사람가족이 종로서압헤서 수심이만면하야 아모죄업는 어린아해 까지허리가지겟다고하는양은 자못잔인하야보이엿스며 그뿐만아니라 미국의원단이 순회할 도로부근에는 삼사간만큼식 벌녀선 경관들은 금시에 무슨큰일이나날듯이 칼자루를 갑득잡고 조선사람이라고는 얼신도못하게하얏스며 의원일행이경복궁(景福宮)을구경하러갈때에는 조심스럽다는 리유로 뎐차의운뎐까지 일시중지를 명하얏고 수십명식 떼를지은 시위대의 자동차대와 긔마대들은 경성시가를 수일사이업시 순회를하야 긋칠줄을모르고 이십오일의하로동안 경성시가는 오직말굽소리와 칼집소리와 사자의 부르지즘가튼 경비와 자동차의 경적소리와 맛이모든소리에 몰녀다니는 수만명시민의 다름질소리에차혓섯더라

自由의客은戒嚴中에

무사히예정한조선호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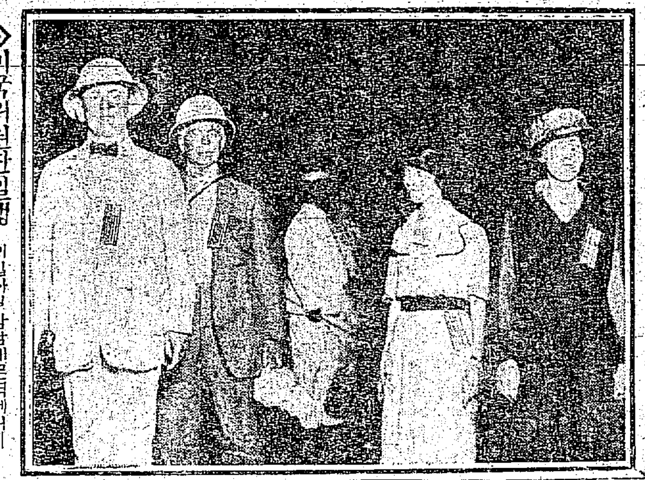
묘망한태평양을 격하야잇는 자유의나라 아메리카의 국회의원 사십구인이 동양의문물을 시찰하고자 한번조국땅 밟는 매 중국의사업만민중은 혹은 진과한 음식으로 혹은아름다운 풋뎨로 그들을환영하얏다 그러나 그들이

조선의쌍 을밟게되매맛당히 아름다운곳과 정다운악수로환영할 조선의사람들은 그무슨연고인가? 조선의수부이요경성이 멀니온귀한손님을마즐경성시가가 아츰부터인심이 흉々하고 살긔가 천지에 가득한듯 다만 시위하는경관의 말굽소리와 번쩍이는 군도자루만 사람으로하야곰 한층더 커참한 감회를 이르키게하는데 이와가치 인심이 흉々한때에 일긔조차 험악하야 허장을가라부는듯한 검은구름이 하늘에가득하고 부실부실 나리는비는뭇치지아니하는데남대문뎡거장근처는

더욱경계 가심하야인도의좌우로 사오간식격하야 섯는 경관과 긔마순사가 간단업시말을달니어 모혀드는군중을헛치기에 노력하고 뎡거장구내에도 수십여명의경관과 오륙인의 긔마순사가 엄중히경계하며 신경과민이된경관들은 어데서 바람소리만크게나도 도라다보며 어두운밤쏘다지는비속에 경관의눈동자만 이상스럽게빗난다 여덜시삼십사분차로동의원단이남대문에나리어 귀빈실에서 여러신문사의사진박히는『마네슘』의광선을바드며 총독부에서 준비한자동차십여채에 혹은네씩혹은셋식타고

조선호텔 로드러간다시가가전부휘시하야 뎐등불이 희소함으로 경성시가가 어둠침々히보히는것을보고 찬란한 옷을닙은 미국부인네중 년긔졂은커녀들은 고개를기우리고 처음보는경성시가를바라보며 시가가 고요하고 어두움에놀내는듯도하얏다 자동차를난호와탄 그네들은 남대문으로드러와 혹은태평통을것치어 조선호텔로 드러가고 혹은남대문통을 것치어조선호텔로드러갓다 이리하야미국의귀한손님들은무사히려관에드럿는데

원래인심 이 동요한때이라 그와가치 혹독한 경계에도군중은점々 모히어남대문통 태평통그들이 드러오는길의 좌우에는군중이무려 수만명이 모히어 그들의 지나가는 모양이라도보려하엿더라



◇미국의원단일행 ‖이십사일밤남대문역에서‖

米客의昌德宮拜觀

주합루에서다과까지향응

이십사일하오팔시삼십사분에입경한미국의원단은 즉시 조선호텔로드러가 수란한하로밤을지난후 이십오일상오구시반에 [illegible] 오대의 자동차를분승하고 즉시 호텔을떠나총독부로가서일행중에서단장『스몰』씨, 외교위원장『포터』씨, 경성에잇는미국총령사『컬리』씨, 상원의원『해리스』씨등사명은

재등총독 과면회를하고 주객사이에 멀니온치사와 반가온인사를 교환한후 즉시 자동차의 머리를돌니어 상품진렬관에 잠간들너서 순람할새 [illegible] 조선부인의 손으로된 [illegible] 가장흥미잇게보왓스며그길노다시 창덕궁으로 향할새좌우로 벌녀잇는 조선사람의 상뎜은 전부철폐를하엿는지라 그들은 무에라고수군대이면서손으로 가르키는등 자못이상히역이는모양이 보이엿다 이에 경관이 탄자동차로 압장을세운 일행의자동차는 다시만인의 이목이모히는중에

창덕궁에 이르러 동행각(東行閣)압헤서 의식과장 리항구(儀式課長李恒九)씨의마중을 밧고 즉시 인정뎐(仁政殿)으로 드러가 옥좌(玉座)를배관한후즉시비원(秘苑)과박물관(博物館)을구경하며 주합루(宙合樓)에서는다과의대접까지 밧앗스며 박물관에서 구경을맛치고 다시도보로 식물원을 [illegible] 홍화문(弘化門)압흐로돌녀나와서 자동차에다시올나서 [illegible] 다시동대문안으로 나려가다가 어의동보통학교 교뎡으로 [illegible] 중앙시험소와 및공업전습소를 구경하고다시 차를모라 [illegible] 경복궁을배관한후 [illegible] 조선호텔로무사히 도라갓더라

京義沿路에도萬歲

곽산과안주에서도군중이 미국긔를들고만세를고창

미국의원단이 압록강을 건너경성을향할때에 평안북도곽산(平北郭山)뎡거장을 지나약삼뎡가량이나되는 텰도연변과 평안남도안주(平南安州)뎡거장부근에서는 사오십명식의 남녀군중들이 준비하야잇든 미국국긔를 놉히흔들며 독립만세를 소리처부르매 미국의원의일행은 부인령양들까지 차창을열고 모자와손수건을내어둘너서감사한뜻을표하얏다더라

六穴砲暗殺團檢擧

수모자김상옥은다라나고 상해에서온한군만잡히어

미국의원단이남대문에도착할때에 일본관리를암살하랴다가발각되야

동대문외에 사는 김상옥(金相玉)은본래부터 배일사상을품고 조선독립운동에 참가하는듯한 혐의로 경무당국의 주의가엄중하든바이번에 미국의원단이 입경함에 대하야무슨음모가 잇는듯함으로 지난이십사일 오전한시반에 경관일대가 돌연히 김상옥의 집에이르러문을박차고 몰녀드러가 김상옥은어느틈에발서질 [illegible] 넘어자최를숨기엿고엄 [illegible] 한결과 한군(韓[illegible])이라는청년의자와 밋최신식십 [illegible] 과 암살단가명계약서(暗殺團加盟契約書)외에 또불온문서오십 [illegible] 계속하야 한군은 본시상해 [illegible] 에 잇든사람으로 [illegible] 안동현(安東縣)을떠나 [illegible] 압록강을건너 도보로와서 개성까지 [illegible] 경성에이르러 즉시 [illegible] 차자와서이번

암살음모 에가명한모양인데 그들의 목뎍은이번 미국의원단이 남대문에도착할때에 륙혈포로써 일본인고관을 암살하야서 조선사람이 일본관헌에게 얼마한 반감을품엇는가 알니게하고자함이엇다하야 목하다수한 련루자를 착々검거중 이라더라

『旅程變更』文書

엇던자의소위인지 의원단은안온다고

이번미국의원단이조선흉통과한에대하야는 별々풍설이 다만흔데이라평양시중에는지난이십삼일밤에 미국의원단려뎡변경(米國議員團旅程變更)이라는 제목아래에봉텬특뎐(奉天特電)이라하고『조선각디에괴질이 심하야 미국의원단은 곳대련(大連)을향하야 [illegible] 하관(下關)으로도착하리라』하고그곳에는다시얼마간평지국』이라는문자를 쓴문서를등사판에박히여시내에배부하얏는데 이에대하야 일반시민들은 크게분개하야 이는반다시 엇더한진쟁한부등빈의 소위이라고소문이자々하다더라(평양)

米議員團南下

오후팔시십분특별렬차로

썩은시간에 만흔구경을바든 미국의원단일행은 하로동안시찰을 맛치고이십오일오후팔시십분에 특별렬차로 섭々한듯이 가는비가나리는중에 출발하야 일본으로향하얏는데 긔관에서 [illegible] 뎡거장부근의경계는 도착할때보다도 오히려엄중하얏더라

議員一行에게 贈呈한紀念品

[illegible]

朝鮮人歡迎은中止

비공식으로다수의말이잇서 조선인환영회에오기를거절

미국의원단이 조선에 방문함에 대하야 순전한조선인만으로 환영회를청년회에 열고자 [illegible] 리풍재(李豊載)신흥우(申興雨)등유지제씨의 발긔로사회각계급의 명사가이백여명이 찬동하야한편으로 회비를 거두어고 [illegible] 민드는동시에

환영의순서 를정하야우리조선사람만으로 정성스러운 고 뜻한 정을표하고자 여러가지로준비를하다가 재작이십사일에 미국의원단이경성에드러오매아모리 남과가치풍부하든 못하고 넉々한힘은 업스나우리의정성것은그에게조선사람의환영하는성의를표하고자작이십오일아츰에신흥우(申興雨)리상재(李商在)량씨가

조선호텔로 미국의원단을차자보고 조선사람의 환영회에출석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엿더니그들의 대답이 우리가조선사람의환영회에출석은할터이나 [illegible] 대답하얏는데 그때맛츰 [illegible] 환영단 국제친화회(國際親和會)간사 단우청차랑(丹羽淸次郞)씨가잇슴으로 그에게 미국의원단의말을들하고 의향을물는즉 그의대답이 그야손님된 미국인의 말햇이라만일미국인이간다하면 우리는 아모말도 하지아니하겟노라하야

원만히타협 이되야작일오후세시반에 청년회관으로 출석하게되엿슴으로 청년회관 편에서는 [illegible] 환영회를설비할것이라하야 이에대하야본사에서도 아모조록 만흔조선인의정성스러운환영을무사히진행하게하기위하야특히동환영회개회에관한주의사항을호외(號外)로일반시민에게 전달하얏는데 오후한시반경(頃)에 돌연히 국제친화회원인 일본인모씨가와서 미국의원단이 출석치못하겟다하는 서면을 가지고와서 오지못하겟다는 뜻을전함으로

동환영회에 서는그의말만밋고잇슬수업다하야즉시리상재 신흥우량씨가가서 출석치못하는 리유를뭇고 섭섭한사정을 말한즉 미국의원들의 대답이경무국에서 비공식(非公式)으로 자긔네에게말하기를당신네가조선인의 환영회에 출석하는데대하야 도중경계를 보장(保障)할수업스니 마음대로하라!말한즉 우리는 그러케까지하야 출석할필요는업슨즉 이와가튼 조선인의후의에대하야 출석치못하는 것은 매우유감이나 갈수업스니

섭섭하기는 피차일반이며 더욱조선인의 장래에대하야 만흔행복을빈다는대답이라하야 모처럼차리엇든 조선인의 환영회는결국 중도에 폐지되엿더라

實로意外의事

허락까지한일이데 참뜻밧게일이라고 李豊載氏談

별보한 환영회중지에 대하야발긔위원의한사람인 리풍재(李豊載)씨는말하되원래이 회는처음에불과이자히로 이십여명의발긔위원으로 조직하야 그후에각교회의 유력자와사회 각계급의 유지를합하야 회원이 이백여명이나되엿슴으로

다른환영회 와가치미국의원단일행을맛기위하야 [illegible] (宋彦用)씨를 [illegible] 까지보냇섯는데처음에이환영회를준비할때에 국제친화회(國際親和會)간사당되는단우청차랑(丹羽淸次郞)씨가와서일본인 [illegible]

難言의失望、意外의歡喜

絶望과沈默中에突然히米議員出現 熱烈한歡呼裏에個人의資格으로交驩

모처럼승락을어든미국의원환영회가돌연히중지 미국의원『헐스맨』씨가개인으로회장에나타나서 진실한동정으로조선사람의게향하야정다운인사

意外에一人의議員

자동차를타고서미힝음하야 미의원『헐스맨』씨가나타나

작이십오일에 청년회관의 미국의원환영회가 중지되엿다는 별보와가치 이러나는 동시에 원회원들은 부득이 그네를환영치못한 동시에 [illegible] 중단되에게 줄 [illegible] 기념품을 [illegible] 분주하고 더욱환영회가 중지된 사실을 [illegible] 귀뎍이는군중들은 시간이 [illegible] 아도 [illegible] 가기를 앗기어하는 듯이 한사람두사람 나가기를 시작하얏는데 때는하오네시가 거의되엿더라 이때에 청년회관문압에

난대업는 자동차가비를무릅쓰고 닥치더니 휴게실아래에 [illegible] 『후라―』[illegible]

송언용씨가 떠나는날에 대하야 의하야보앗스나 각회원의 발의에 우리가 귀국에 [illegible] 단우씨가 본환영회에서 [illegible] 미국의원단이 드리오매 오늘아니다하더라

『正義人道로奮鬪』

어듸싸지든지정의인도로 향상발면하도록분투하라

미의원『헐스맨』씨의연설

『여러분-조선청년-』하고말을내이며우리가본국을떠나 수萬수천리를 사개월간이나 려행하며동양을 차々배에 여러분의나라 조선을 [illegible] 구경코자하얏스나 이나라는일본의령토이라 일본에드러와서는 일본정부의 손님으로 일본의관헌이 식히는대로하지 아니치못하야 여러분의근뎐한 희망과 [illegible] 환영코자함도 보답치못하나마 여러분을보고 우리섭々한인사나 한마듸하고자 개인으로미힝(微行)하야 여러분을 차젓소

귀국은산수가 명려하고 우리의고향『켈리포니야』주의산천과상々되오

여러분! 여러분의얼굴을보건대 여러분도우리나라청년과가치 향상의활기와 광채가득하오 아모조록여러분은학술과공업을힘써셔 모든것을향상케하야 아모조록더욱정의와 인도로 분투하시기를바라오

여러분! 나는여러분에게 장황히말할시간이 업습니다 [illegible] 내가고국에도라갈지라도 여러분에게서어든 깁흔인상은 영원히잇지아니하겟노라

말을 맛치자 감격에못니이는 군중은손바닥이 쎄여지라하고 박수하는소리는 청년회관이 떠나가는듯하매만장은 또다시박수갈채로 감사한뜻을표하얏는데 동씨는하원의원『허-쓰맨』씨라더라

李商在氏의答辭

의원단을환영하든 오죽정의인도쌍답

이에대하야 리상재(李商在)씨도개인의자격으로그에게답사로 『우리가미국을친애함은 그나라의 부함도아니요 강함도아니라 오직정의와인도를대찬하기때문이라』는말에 군중은 또다시박수환호하얏다

群衆은何故로抑留

조선사람을무슨리유로 함부로억류를하느냐고 『헐쓰맨』氏의質問

리상재씨의 답사가맛치매 종로경찰서장이 사십여명의경관을다리고 드러오더니 [illegible] 미국대의사를가라치며 한명의순사에게 이 [illegible] 군중은 강당안에 감금하고내여보내지아니하매 [illegible]

外交委員長도

청년회관에와서

[illegible]

旅行者의不便

경계디방에는 확인까지조사

[illegible] 디방에서는 면々촌々마다 [illegible] 조사를 [illegible]

二十三名

廿四日患者 괴질은차々쇠식

이십사일경성시내의괴질환자의 발생수는 남자가 십이명 녀자가 십일명 합계이십삼명이요 그외에 또보균자 두사람이 잇섯는데 처음부터 루계는진성환자 일백사십칠명 보균자 [illegible] 합계 [illegible] 을계산하기에이르럿는데 루계가차々주러가는 리유는환자중에 음성(陰性)으로 결정되는이가 차々느러가는까닭이라더라

ClibPDF - www.fastio.com

浮萍草 (一○四)

閔牛步

에매한루명

나는만길이의 권고를 듣고용긔가연셧다 그러나 나를인도하든운명은 언제까지던지 그버로두고보지를 아니하엿다

그럭저럭 몃주일을 지난뒤에 엇더한곳을 당도한즉 이곳은지금까지 지나오든중에서 데일번화한 도회처뿐아니라 영국시골서는 일년일차의 데일큰 노리로아는경마회가 내일부터 시작된다하야 각처에서 구경꾼들이 모여든다 물건장수가 모여든다 구경거리가 들어온다 번화하기가착이업스며 경마장 근처에는 발쇠장이업시신히 하엿다고한다 경마오던날이 장날이라고시골작수를 단이는 오씨집으로말하던지 메로변홍하는 본이원칙으로 말할던지 불가불 밥을먹게되엿다

나는 만길이와가치 그준비를 하기위하야 경마장근처를 구경나간즉 과연듯든바와 마차와집차들이 왓다갓다하고 비하게 늘어섯스며 그사이로는 긔의가々々물건가々들이 길갓다 이곳에 모여든사람은 밀니는 돈서 우리친고들도 와잇셧다 그는 우리를보고 대단히반가워하면서 마침 잘맛낫다고하엿다 그는그의동모두사람과가치 강재조를 가지고도벌이를하랴다가 공교히 풍파장이가못오게되여서 일이틀녀던판에우리를 만난것이엿다 그는우리일힝과 자긔일힝을한데합쳐서 가치벌어가지고 선둥이와지 너어서 똑가치나누자고하엿다 나는승락을하고 려관으로들어가서 아버지와 의론을한즉 선둥이는 린일여긔서쓸터이니 너의들만가서 가치벌이를하라고하엿다 신둥이를 꺽어에쓰나냐고한즉 『린일은난장판에서장사를할터이닛가 신둥이는가々를직혀야한다 그리고너의들은필경놋도록홍칭을하게될것이니늣게되거든간밤에자던외딴주막으로오나라 나는너의들 오기를기다려가지고 오늘밤으로 길을떠날터이니』하엿다 그외딴주막이라고 하는데는 벌판에—외따로잇는 쓸々한주막이며그주인내외는외양부터도흉악하게생겻섯다 그러나그리하라고 하는담에는 엇지할수업는터임으로우리는 그리하겟다고 대답을하고나갓다

잇흔날은 경마회가 열니는날임으로나는신둥이에게밥을만히먹여서 마차뒤에다 붓들어매여노코 경마장으로나갓는데 그날은 청랑한날이엿다 아침부터 밤까지 지나는 손님들을 다셔 손붓이아푸도록되엿고 만길이는 종일창재주를넘다가 저녁때가된뒤에는 『이번이마지막』이라고하여가면서도스무번이나더넘엇다 원데 수일새업시 오종일재조를 넘으닛가 괴운이지친던지 필경은재조를부리다가 랑패를당하여서 재조부리는 기둥이넘어지면서 만길이는땅에 지엿다 그러나다행히 배는상하지아니한고로 만길이는곳툭이 마차에하로밤을 새우게되엿는대 그리고본즉 나는쳐더가곤난하게되엿다 약속을 하엿승즉 외딴주막을 안이갈수도업고 그러라하여서 만길이만남겨두고 나혼자부모를찾어서떠나갈수는업는터이라 더구나 이날밤에는 신명이가르치던지 만길이를저버리기가 터구나 실흔것을억지로참고다시올핑계거리를만들기위하야 버슨거문고를 만길이게맛기고이곳을떠나갓다

이윽고 그들판에잇는 외딴주막을차자가서 문을두다린즉 그 무섭게생긴주인이나와서 사방을 둘너본뒤에입안의말로

『너의아버지는 발서떠나갓다 너는오늘밤을새여서라도루상동이라는동리를오라고하더라』

주인은 이말만하고 밋처며답도할새가업시 문을 걸러잠거밧엇다 우리집안사람은 벌서떠나갓단말인가 무엇이 그리급하던가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하여본즉 아모리아버지말슴이라고 할지라도 편찬은길이를 내바리고 그대로갈수는업는고로 나는 오던길로다시가서 그날밤은만길이와가치잣다

잇흔날아침에 일어나서 놋소 ... 발서일어나서 붓슴피우는중인데 이때에 ... 와가치잣다

「이것이네개냐」
「네그럿습니다」
「그러면 나를따러가자」

하고 ... 내팔을잡고들엇다 이것을본동이는 순사의 엽흐로오더니
「이애를 웨잡어가시요」
「너는이애하고형뎨간이냐」
「아니요 우리동모요」
「간밤에엇던자가 어떤애들달이고 레배당에들어가서 도적질을하다가 숙직하는사람에게 들켜서 이개만남겨두고 도망을갓는데필경 이근처에 잇스러니하고 개를달이고나왓더니 과연하나는 여긔서붓을엇다 이애네어들은어데잇니」

나는그말을 드를뻐에 그사건의리하를짐작하엿다 어적게아바지가 신둥이를 쓸데가잇다고하던것은 마차를직히는 것이아니엿스며 밤중에떠나간것도 까닭이잇슨것이다

地方通信

黃州罹災救濟續報

本月一日舞前의大洪水로因하야黃州邑部의三百餘戶沈水中家屋全潰한者가五十一戶인바此에對하야各團體及個人等이救濟金을捐出한바如左하다더라

一、耶蘇敎長老派에서는信者에게는一戶에二圓式不信者에게는一戶에一圓式助給

一、男女靑年會에서는慈善音樂會를開催하고五十餘人의協務金發行하얏는데天柱面新興靑年會에서十五圓天道敎會에서十圓興業社事務員朝鮮人側에서三圓李敬執金錫珽兩氏各五圓天柱面長李斗遜氏二圓李正贊氏二圓의同情金이有하야窮家五十一戶에三圓式助給(黃州)

松汀勞會維持困難

松汀勞働修養會의今春組織된것은一般의周知하는바이니와組織當初에維持費로朴鳳柱氏外十二人의寄附金이五百八十圓에達하야維持上頗히樂觀케되얏더니錢慌의餘波로因하야그寄附金徒然히寄附錄에만金額과氏名이記載되얏슬뿐이오一人도現金을支拂치아니함으로該會는維持費에困難莫甚한中、朝鮮勞働共濟會支會에서는會員에게만限하야二圓式助給(黃州)

海州敎會傳道近況

海州邑耶蘇敎會에서는邑內每戶에傳道하기爲하야本月十五日부터牧師朴季和氏以下男女信徒數十名이熱心傳道하며每日午後八時에는南本町禮拜堂에서講演會를開하는데信徒志願者가每日多數하다더라(海州)

開城女子敎育會

開城女子敎育會主催로本月二十三日午後八時부터當地忠橋禮拜堂에서定刻前籍員의大盛况으로講演會를開하고副會長金一鎬孃의司會下에張眞心孃은早婚이란問題로金鎭兌君은現代女子의生活이란問題로李眞卿女史는迷信이란問題로金永羲君은金錢이란問題로各々熱情的雄辯을試하엿고問로淸雅한音樂과外國風景寫眞의幻燈도有하얏는데特히南啓伯仁輝男妹의並唱은五百餘名聽衆의게多大한興味를起케하얏더라(開城)

普信女校新築工事

當地普信女學校는耶蘇敎會의經營으로每年七八百圓의經費를支出하며當地女子敎育의多大한影響을及하얏고以來校舍問題로多年間懸案되얏든것을今番美術會의決議를엇어新築하기로可決되바總工費二萬五千圓純洋式二階煉瓦製、坪數八十坪으로建築師金宋武君으로擔任監督케하야今週礎工事에着手中이며竣工期는明年三月이라하는데竣工만되면從來의女學校舍를男學校로한다하니如此히되는日에는城津敎育界의一大光明이될것이오多年間耶蘇敎人과西洋人間의不平의端을圓滿한解決을엇게될것이오

禮拜堂建築捐補金

黃州郡細洛面德隅里耶蘇敎會는設立한지十餘年이로되信者의數가四十名에不過하더니本年부터信者가激增하야百餘名에達하매禮拜堂의狹窄함을恒常遺憾으로思하든바本月初旬頃에一週間査經會를開하고聖經의眞理를硏究하든中一般信者等은熱心을奮發하야捐出한金額이一千二十三圓인데就中不信者도多數한金額을捐助함은祝賀를不已할바이더라(黃州)

開城의野球競技

本月二十三日午前十一時五十分列車로仁川漢勇團一行이開城에來到하야當地私立松都高等普通學校運動場에서午後四時부터高麗靑年會長崔龍煥君의試球式下에該運動部와對手競技하얏는바結局앞와十三對零으로高麗靑年會가大勝利를得하얏는바仁川漢勇團은敗戰의憤慨함을不勝하야報讎的으로二十四日更히對手競技를試하얏다더라(開城)

咸興福音講演會

咸興基督靑年會館에서八月二十二日下午四時부터福音講演會를開하고金仲錫氏의司會로宣敎師鄭念力氏는「重生」이란演題로一時間餘의熱辯을吐하야多數聽衆에게大覺醒을與하고散會하얏다더라(咸興)

定平巡回講演續報

定平地方巡回講演隊의出發은旣報와如하거니와去十五日外지豫定地二十餘處를全部巡講하고十六十七兩日各히無事歸着되얏는데到着마다非常한歡迎을博하얏스며聽講人數는最多長川里七百餘名最下豊松里二十八名이엿섯다더라(定平)

各地靑年團體

靑年會巡回傳道隊

當地靑年會에서는傳道隊一行三十餘名은來九月二日에出發하야忠北各地方을巡回傳道할터이라는대今番이第一回요以後로二三四回로繼續巡行한다더라(淸州)

統營靑年團定期會

統營靑年團에서는八月二十一日午前十時臨時會館內에서第三回定期總會를開하얏는대當日事務處理할것은一、決算及預算報告二、任員改選三、規則修正通過의件、秋期大運動會에對한件、一、虎列刺防疫에關한件의第인대新히被選된任員은團長宋正宅、副團長徐相灝、總務呂炳奭、金榮鎬、監事黃河一、金宗元、體育部長朴正玉、德育部長金學培、査察部長朴奉杉氏等이라더라(統營)

靑年會와豫防注射

錦山靑年會에서는創立以來靑年界事業에盡力中이던바今般各地方에虎列刺의猖獗함을際하야本月十六日부터豫防注射의無料實施에着手하야懇切히施行하는中인대날이갈사록願하는者가多數에達하야夜間外지알는者가多數에達하야衛生部任員醫師李輔順任健煕李輔允諸氏가熱心從事中이더라(錦山)

合成女子靑年會

本月二十日午後八時에黃州郡合成女子靑年會에서金順福孃을請邀하야長老會禮拜堂內에서講演會를開催한바會長鄭進化孃의開會辭와代的人의原動力이라는演題로一時間長廣舌을揮하야無限한感想을四五百聽衆에게與하얏스며更히有한後金順福孃이登壇하야時에閉會하얏다더라

靑年團一週年紀念

八月二十三日은統營靑年團創立一週年紀念日이라當日午前十一時부터團員百餘名이臨時會館에會集하야徐相權氏司會下에紀念式을擧行할새先히奏樂이有한後李謙根氏의本團經過報告와金淇正氏의祝辭及又는團員黃河一金桂氏의祝辭가有하얏고時間長廣舌로演說이有하고男子側에서時計及眼鏡等을出捐하얏다더라(黃州)

舍人面靑年會創立

黃海道鳳山郡舍人面林村에서는今月十九日午後二時에舍人面靑年會創立總會를當地禮拜堂內에開하고臨時會長李從培氏司會로新會의維持方針에對한討論과重要任員을選定하고柳基玉孃의演說이有하얏스며八時半부터는英植氏는半島靑年의特色이란問題로金基純金보講演會를沙里院醫師金基各其雄辯을吐하매千餘名의聽衆은非常한感動으로本靑年會를爲하야各々自發的으로出捐된金額이三百二十餘圓에達하얏다하며當日被任된任員은會長尹鳳奎總務李從培諸氏等이더라(沙里院)

男女靑年傳道隊

黃州邑內에서는靑年男女九人이傳道隊를組織하고黃州境內八處敎會에巡回傳道할次로本月二十一日午後直行列車로黑橋面龍沼洞敎會로出發하얏다는대其隊員과處所는如左하더라

一、處所는龍沼洞 芝非洞 新村 石井 發村 金山里 九老里 內松里

一、傳道隊員 隊長金贊根 隊員宋貞根 李鍾贊 金允浩 林應八 女子蔡光德 李瑪利亞 金元愛 林性善(黃州)

首陽傳道團組織

海州女子靑年會에서는宗敎的時代의渴望을順應하야基督敎精神을社會에普及할目的으로傳道團을組織한바會長車士镰總務池貞信女史金溫順姜高明四人으로團員을組織하고首陽傳道團이라命名하야本月二十三日甕津方面으로出發하얏는대該團員은本來女子界有名한雄辯家요篤信者인故로本敎會內에서旅費의發捐이多數하얏슬뿐아니라東亞日報社海州支局에서極力援助한다더라(海州)

朝鮮靑年會聯合期成會

各地靑年團體의加入을歡迎

最近新興하는各靑年團體를聯合하야一大聯盟團體를組織코저靑年有志間에朝鮮靑年會聯合期成會를發起하얏슴은本報에旣히紹介한바어니와其後籌設計畫의漸進하야趣旨綱領及組織方法을左開와如히決定하고各靑年團體의加入을勸하얏스니此를紹介하야該聯合會에加入코저하는靑年團體의參考에供코저하노라

注意 加入希望團體는「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一二八番地」該會事務所에申請함이可함

趣旨

時代의進運을따라우리朝鮮各地에蔚興하는靑年團體! 그旺盛하기百泉의新湧함과가트며二個獨立의萬花의方發함과갓도다

이제靑年團體로써우리知德體의發達을助하며우리社會團結의端緖를作하며우리産業의振興을作하나니그럼으로萬人이다口를齊하야此를賀하며心을同하야此를祝하도다

그러나吾人은自覺의上에또一大自覺이잇노니此는우리靑年團體의聯合이라곳지금우리朝鮮各地에衆星가치散在한여러靑年團體가一致團結하야一大聯合團體를成立함이라그理由는대개左와가트니라

第一 社會生存의最高手段은不團結을合하야團結을作하며小團結을合하야大團結을作함에在하나니곳團結이라야優勝을得하는所以니라

第二 一社會의各團體는반듯이共通의性質을가짐이必要하나니곳各團體가同一한精神、主義下에서一致한步調로各樣의動作을行하여야可히써그社會의最大目的을貫徹할지라그럼으로各團體를聯合시켜共通의性質로進行함이必要하니라

第三 長短相補하며有無相助함이곳社會存立發達上에必要한事니우리各靑年團體가서로聯合하야相補相助하여야可히써各靑年團體의功業을完成할지니라

(全略)

主義綱領

吾人은世界改造의機運에順應하야各人의天賦한生命을暢遂하며民族의固有한生榮을發揮하기爲하야左의綱領을定함

一、社會를革新할事

一、世界의知識을廣求할事

一、健全한思想으로團結할事

一、德義를尊重할事

一、健康을增進할事

一、産業을振興할事

一、世界文化에貢獻할事

組織方法

一、朝鮮人의各靑年團體를網羅하야一大聯合會를組織할事

二、聯合團體는中央聯合機關으로存在할지오各靑年團體는各히獨立團體로存在할事

三、各靑年團體의加入은本會委員會의査定을經由할事

執行委員

執行委員長吳祥根庶務部李一李時琬、權泰洛、韓基岳、李敦經理部張安、金炳與、元眞龍、社交部張德秀、張基郁、金翰、地方部張道斌、李英、朴容昌、金明植、安廓、尹柱衡、柳詩熙、李兼祚、朴一秉、尹滋瑛

▲加入手續 各靑年團體는加入手續에關한樣式을本期成會에請求할事

慶南陜川邑內權夫人(楚仙)의行蹟

慶南陜川邑內楯夫人楚仙氏(?)는晋州郡大安洞出生으로父는安東權氏요母는金海金氏인대無男獨女로父母의生前에至孝로奉養하얏고死後에는初終及三祥을禮로誠意와하야奉祭를誠意로하며墳墓에床石等物을具備하야設하고忌祭와春秋節祀를至誠으로奉하니鄕黨隣里之人이誰不稱歎하리오 年이三十七에陝川邑內로移居하야慶州李氏李浩氏는結婚을한바李氏浩氏는家宇가軒昂하고性質이淵邃하야家事를不務함으로生計가日々자모함에夫妻相議하여日衣食이足이라야禮節이生하나니우리貧寒이至此함에廉恥를엇지도라보리오하고卽時酒食業을開하고生活을活計하기로가爲하야數年之間에家計가稍豐하야陝川新邑의商舖를作하야漢城과交하야邑內酒商은自然不振하고邑內十五에至하니其後酒酒業은二層擴張하야各種饌具之味를備하고酒幕을設하야洞民의事務所來臨하야幾年之間에商農業은可히經營할만하니其後로는酒商業을廢止하고家用酒肴를常備하야遠近親戚과貧寒朋友를誠心厚待하며賓客이陝中의儒林에는錢穀을不惜하야救助에盡力하니비록巨萬富豪라도엇지이에미치리오萬人이그德을稱頌하야其行을頌하였고今年三月에不幸히李氏가棄世함에그德蹟을刻하얏스며秋에大路市邊에石을竪하야去乙卯年에李氏가山下洞民을賑恤하야大德을行하얏고今年秋에安葬한後墳塋及香室는瓦와石을具하야數萬金의巨額을出하야先塋下에其子石純을率하고其哀戚을表示하야山下洞民을賑恤하며方今其子石純은다리고其夫의碑閣을設立하니由來十數年間前後善行美事는雖以君子紳士리도不及하겟더라

晋州郡晋州面平安洞一二二三番地 金斗善 白

社告

本分局에서東亞日報의購讀과廣告取扱上諸位의便宜를計圖하기爲하야左記中(乙)二個場所에分賣所를設置하얏사오니各管內居住하시는諸位는便宜上그곳으로請求하시옵소서

(甲)主務者氏名住所及管轄區域

一、邑內 高義守

二、區域 城洞面大坪面

(乙)主務者氏名住所及管轄區域

一、延岩面栗里 羅昌鎭

二、區域 延岩面公浦面

東亞日報遂安分局白

靈岩分局長 曹鳳煥

總務 金鳳奎

記者 金萬藏

靈岩分局任員을右와如히定하얏기玆에告白함(任旣報한分局長曹鳳煥의鳳字는凤字의誤이기訂誤함)

東亞日報木浦支局白

豐山郡里仁面新豊里

東亞日報社豐山分局長 金濬大

記者 吳秉熙

右記와如히分局을設置하얏사오나豐山郡內에居住하시는人士는本報의購讀請求와廣告取扱에關한事項을該分局에直接交涉하시옵

東亞日報社北靑支局記者林元根은今般事情에因하야辭免하얏삽나이다

東亞日報社大田支局白

痢疾

百中이오니痢疾로苦痛하시는者는곳服用하소서本堂營利는不顧하고同胞衛生을目的함

二日分 六十錢(郵料四十錢)

四日分 一圓十錢

右는先金을要함

京城寬勳洞七四 壽昌堂藥房 電話二五八七 振替七八九九番

平壤南門通 箕城寫眞館 主 金永善

八月二十日부터新寫眞

伊太利안부로조會社作 泰西社會劇 女流作者 全五卷

英國범범會社作 神秘映畵 靑年의覺悟 全六卷

나는靑年이다前途에만한希望이잇다엇지하야希望을다할가正義와人道의勇者가되야一身을犧牲에供하는徹底한覺悟을拖持하고光榮의最後를結합이人事를다함이안인가?!

國際活映株式會社特約 漫畵猫의花店 全一卷

團成社 電話九五九番

肚筋補陽丸

變弱爲强하야借力이되는

效力 先天不足 血氣大衰 陰衰不强 大損腦强 腎氣不足 夢精遺漏 神經衰弱 腎病及後 (?)

定價金 一個月十圓 二個月十九圓

蔘茸唐草藥材特別大賣 京城鍾路四丁目九番地 亞一商會製藥部

一、깃도短靴 自十七圓至二十二圓

一、全編上靴 有價格보담四圓增加

一、福壽短靴 自十三圓至十七圓

一、全編上靴 有價格보담二圓增加

一、皮經濟靴 自三圓六十錢至七

一、加房經濟靴 自一圓八十錢至四圓

洋靴 經濟靴 商 京城府寬勳洞三十九番地 尹光植洋靴店

勿論하고淋疾하고五淋即解만服用하시면걱정이업스리다

淋疾新藥 五淋即解

權患諸氏는躊躇치말고速히服用하시오婦人赤白帶下에도神效함

定價 二週日分壹圓八拾錢 三週日分貳圓五拾錢 小包料三十錢

發行所 京城鍾路 共愛堂藥房 主 朴容桓 振替一七七二番 電話一九三三番

東洋一의東京自動車學校에서京城과釜山에分校를設하고自動車運轉手養成

我校는自動車運轉手養成을目的하야一個月卒業의晝間敎授를設하고同一個月卒業의夜間敎授를設하고二個月卒業의晝夜兼修敎授를設하야自動車運轉實地로敎授함 ▲授業料는何者던지同一個月卒業과二個月卒業外지金百二十圓으로定하고 ▲入學은何時든지許可함 ▲詳細의規則書는申込하시는대로送呈

●入學期日 每月一日及十六日 京城黃金町 京城自動車講習所

●入學期日 每月一日 釜山榮町 東京自動車學校釜山分校

旅館 元山府南村洞百番地 東鮮旅館 主 朴挺洙

祝元山支局發展

資本金百萬圓 貿易委託 賣買及 釀酒業 元山府上里二洞 元山貿易株式會社 電話二二番 電略(ケ)又(ハ)(외)

元山府新石洞 釀造部 合成釀酒所 電話五四七番

元山市外松興里 韓璣洙

元山府上里一洞 元山客主組合

元山府上洞 勞働大會元山支會

元山府上里二洞 靑南式株會社元山支店 電話一六〇番

元山府南村洞 半島醫院 醫師 安南奎 同 車亨恩 電話五二四番

元山府南村洞 元山禁酒會

元山府上洞 元山女子靑年會

元山府 元山靑年會 電話六〇五番

元山府上里二洞八番地 北鮮倉庫株式會社 電話五三六番

元山靑年會 會員 徐弘燮

元山府北村洞 株式會社 興業社 電話四一七番 電略コ又ハコツ、コ

元山府橋下洞五番地 綢緞 布木 紙物 並雜貨 新舊書籍 李道一商店

元山府橋下洞四十番地 綢緞 布木 內外雜貨 委託賣買 金河銀商店 電略又ギ

元山府南山洞 藥種貿易商仁濟局 主 南觀熙

元山靑年會 會員 尹斗善

元山公立普通學校 學務委員 金在鎬

吉州靑年同志會 會長 金河琪

元山府上里一洞 光德洋靴店 主 崔化源

元山府南村洞 綢緞 布木 商 李容暄商店

ClibPDF - www.fastio.com